

폼페이오 “2차 정상회담 새 이정표 될 것”

다보스포럼 연설후 문답 “스웨덴 실무협상 큰 진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2월말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 17-19일 이뤄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서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19-21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간 첫 실무협상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연설로 진행된 스위스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 “지난주 김영철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지명된 그의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 성사를 위한 복잡한 의제 중 일부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열린 첫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하크홀름손트의 휴양시설에서 2박3일간 합숙 담판을 했다.

2차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첫 협상인 만큼 양측은 핵심의제인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담판했

을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 2차 회담 성사까지 남아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좋은 일은 생겼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정상은 동의를 한반도 안보와 안정, 평화를 위한 비핵화 달성에 아직 많은 단계가 있다”며 “우리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2월 말에 우리는 (비핵화 달성을 향한) 길에서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를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2차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말해줄 새 소식이 없다”고 함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이것을 말할 수 있다”며 “협상은 지금 꽤 진행 중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민간자본의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올바른 여건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지금은 민간영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핵화 달성을 향한 본질적인 조치를 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구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 뭐든 간에 그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민간 부문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기대하는 안정을 가져올 북한의 경제 성장 달성에 필요한 엄청난 민간 부문의 ‘진출’(push)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판빙빙 효과’ 中연예인 2조원 자진납세

지난해 중국 톱스타 판빙빙(范冰冰)의 탈세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중국 연예인들이 총 2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자진 납세’했다.

23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총 117억4700만 위안(약 1조 9500억원)의 세금을 미납했다고 신고했는데, 이 중 115억5300만 위안(약 1조 9150억원)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

작년 판빙빙의 탈세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중국 당국은 영화계 스타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세무 당국은 작년 10월, 고소수 연예인들이 2016년 이후 납세 실적을 스스로

재점검해 누락된 세금이 있으면 연말까지 ‘자진 납세’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스스로 탈세액을 납부한 연예인들을 가법게 처벌하겠지만 기간 안에 탈세액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별 조사 기간에 탈세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홍콩 빈과일보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미워전’의 주인공 쑤리(孫麗)와 그 남편 덩차오(鄧超)가 2억5천만 위안(약 414억원), 영화 ‘전랑(戰狼 2)’의 주인공 우징은 2억3천만 위안(약 38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美국무부 유럽담당차관보 돌연 사임

“트럼프 외교 반발 아니다” 대유럽관계에 추가 공백

미국의 대(對) 유럽 외교를 지휘하던 웨스 미첼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가 돌연 사임한다.

미첼 차관보는 지난 4일(현지시간) “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 “이 행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내가 시작한 일, 국무부의 유럽 전략을 발전시키는 일을 완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미첼 차관보는 다음달 15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지난 2017년 10월 임명된 지 16개월 만이다.

개인적인 이유로 물러난다는 것이 본인의 설명이지만,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전통

적인 대서양 양안 관계가 삐걱거리는 시점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AP는 미첼 차관보의 사임이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동맹들의 흔들리는 관계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고, AFP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접근 방식에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가운데 추가로 외교 공백이 생긴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 연설에서 유럽연합(EU)과 같은 다자기구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설을 한 지 한 달 만이라고 AP는 지적했다.

무역 문제, 방위비 분담,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시리아 철군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이 일련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기도 하다.

다만 미첼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발해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시나이반도 다국적군에 日 육상자위대 파견 검토

일본 정부가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서 정전감시 활동을 하는 다국적군 감시단(MFO)에 육상자위대 인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MFO로부터 사령부 요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내달 안보 담당 정부 고위 관리를 현지에 파견, 치안 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올해 여름 자위대 인원 2명을 MFO 사령부에 파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파견이 이뤄지면 2016년 안보관련법 시행으로 가능해진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의 첫 사례가 된다.

당시 개정된 ‘유엔평화유지군(PKO) 협력법’은 PKO와 활동 내용은 비슷하지만, 유엔이 총괄하는 사안이 아닌 국제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해 ‘평화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한 사례로는 남수단의 사령부에 요원을 둔 것 외에는 없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추가로 해외에 자위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추위에 얼어붙은 나이아가라 폭포 22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나이아가라 폭포에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생긴 얼음 주위로 폭포수가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노딜 브렉시트’ 대비 영국 떠나는 기업들

다이슨·소니 등 본사 이전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영국을 떠나는 등 비상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은 이날 본사를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집 로완 다이슨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정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브렉시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다이슨의 본사 이전은 향후 몇달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며, 이는 브렉시트 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이슨의 창업자이자 소유주인 제임스 다이슨 대표가 주요 브렉시트 지지자 중 한명이었다는 점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에는 더 큰 타격을 줬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일본 전자기기 기업 소니도 유럽 본부를 런던에서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으로 옮긴다고 확인했다.

영국 해운회사 P&O는 이날 브렉시트를

앞두고 EU의 세금 혜택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해협을 운항하는 자사의 모든 선박의 선적을 영국에서 키프로스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럭셔리 브랜드인 벤틀리의 에이드ريان 홀마크 CEO는 브렉시트는 자사의 수익성을 위협하는 “킬러”라면서 부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소매업체인 ‘닉슨스 카폰’과 영국 최대 반려동물용품업체인 ‘페츠앳홈’도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에 대비해 주요 제품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캐나다, 中구금 자국민 석방 위해 19개국 접촉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 사태로 중국에 억류 중인 자국민 석방을 위해 국제적 지지 획득에 총력을 기울여 19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드먼 외교통상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정부 간 접촉을 갖고 자국민 석방을 위해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우선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널드 투스크 유럽

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9명의 세계 지도자들과 정상급 대화를 했다.

프린랜드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 장관 등 11명의 우방 외교부 수장들과 자국민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11개국 정부가 캐나다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성명으로 캐나다를 지지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라트비아, 스페인, 에스토니아와 유럽연합 등이다. /연합뉴스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33억. 일시불 조정가 문의 - 010.3605.5000

